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입직원 회사 발전 힘 모은다

공채 33명 노사발전협정서 준수 서약
누적생산 35만대까지 근로조건 등 협의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일본 판매 흥행몰이

사회 첫발을 뗀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입사원들이 노사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9일 오전 사내 상생관에서 2025년 1차 공채 신입사원 33명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식 및 입사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건강 진단을 거쳐 평균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선발됐다. 이후 3개월 동안 GGM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인턴십 과정을 통해 9일자로 정규직 사원으로 임명됐다.

신입사원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서’를 통해 “우리는 GGM의 설립기반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적정 임금 관련 부속협정서를 차질없이 준수한다”고 다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9일 사내 상생관에서 2025년 1차 공채 신입사원 33명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식 및 입사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서명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는 대안 노조의 성격인 GGM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임금인상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취업난 속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GGM은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세금과 기업들의 투자로 우여곡절 끝에 태동한 특수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 회사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전제로 설립된 만큼 협정서를 잘 지키면 어느 회사보다도 좋아지지만 협정서를 지키지 않으면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회사가 지난 2021년부터 가동돼 만 5년이 안됐지만

빠르게 안정되고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회사 시스템을 믿고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GGM은 전기차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GGM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타)이 유럽과 일본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캐스퍼의 지난 1-5월 유럽 판매량은 1만342대

로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유럽 판매량은 1-5월 국내 판매량 3천902대 보다 6천대 이상 많다.

또 일본에서는 캐스퍼가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판매 100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초기 흥행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돼 5월부터 본격 인도가 시작됐으며 6월 들어 고객 인도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한 달 만에 104대 판매를 기록했다.

일본자동차수입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대차의 일본 내 총 판매량은 13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약 50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캐스퍼는 전체 판매량의 80%인 104대를 판매했다. 수입차 불모지로 불리던 일본에서 이례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현대차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에서 캐스퍼의 판매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GGM은 올해 생산목표량을 5만6천800대에서 5만8천200대로 1천400대를 늘렸다.

이러한 판매 호조가 계속되면 GGM은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 기자

aT, 기능성 제품·퓨전 한식 앞세워 아세안 시장 공략

말레이시아 박람회서 2025 한국관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Food & Drinks Malaysia by SIAL, 이하 FDM)’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FDM은 프랑스 SIAL이 주최하는 말레이시아 대표 식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태국, 미국, 폴란드 등 7개 국가관과 300여개 글로벌 식품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5천여명의 식품업계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aT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 20개사와 감귤통합조직과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김치, 스낵, 과일, 음료,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 다양한 K

-푸드 품목을 선보였다.

특히 어린이용 녹용제품, 콜라겐 음료, 유기농 영유아 스낵 등 푸드테크 기반의 기능성 신제품들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 결과 총 401건의 상담과 2천63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그리고 443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 2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서는 한국산 김치를 활용해 말레이시아 가정식인 매운 코코넛 커리와 스프링롤을 한식으로 재해석한 쿡킹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진 시연·시식 행사에서는 실시간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생생하게 확인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제품 선호도와 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 가능성

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주요 유통사 및 수입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상담회도 열려 제품 경쟁력과 시장 수요 간의 접점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기차 aT 수출식품이사는 “말레이시아는 K-푸드의 기능성과 다양성을 실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략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2025년 5월 기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액이 8천12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품목인 ▲라면(2천379만9천 달러·11.9% ↑) ▲과자류(451만3천 달러·48.7% ↑) ▲김치(85만9천 달러·13.1% ↑) ▲유자(32만2천 달러·134.5% ↑) 등이 전년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태호 기자

광주상의, 중소·중견 CEO협의회 회의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9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CEO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의 생존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불확실성의 강을 건너라’ 역사가

된다! 루비콘 강을 건너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연에서 김광호 콤포비마케팅연구원 원장은 2025년 전반전지 종료된 지금이아말로 기업들이 방향을 재설정하고 도약을 준비해야 할 하프타임이자 기적의 시간임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소상공 금융지원 3자간 데이터 연대

한전·코리아크레딧뷰로와 협약

대안신용평가 모형 공급 제휴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리더스룸에서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철 한전사장, 황종섭 KCB사장 및 주요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기존 신용평가 체계의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공정하며 포용적인 금융지원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휴에 앞서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각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에 성공하고 이번 서비스 제휴에 이르렀다.

평가모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 기금 부금액 ▲전기사용량 ▲전기요금납부정보 등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보유한 다양한 대안 신용정보와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모형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 높아 218만(전체 소상공인의 38%)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안태호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육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